주차난 아파트, 놀이터까지 없앤다

광주 26곳 신규 조성 … 마찰 잇따라
"학교·관공서 주차장 활용 모색해야"

광주 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복지 공간을 줄여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아파트 주변 도로 공간까지 점령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야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학교나 관공서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서구 6곳, 남구 4곳, 북구 10곳, 광산구 6곳 등 모두 26곳의 아파트에서 각 구청의 '공동주택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이 사업으로 아파트당 최소 12면에서 2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북구 314면, 광산구 240면 등 모두 760면의 주차공간이 새로 마련됐다. 반대로 주차공간 1면당 11.5㎡(2.3mx5m)로 계산할 경우 8740㎡의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이 사라진 셈이다. 자치구 예산도 3억8150만원이 소요됐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10~20면의 주차공간 확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복지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민들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남구 백운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청에 예산반영까지 요청했지만 주민반대로 사업을 철회했다.

또 남구 주월보건지소의 경우 지난 2010년 공영주차장 위에 신축되면서 새로 확보해야 하는 21면의 주차장을 인근 '세은2 놀이터' 부지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지자체와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하기도 했다.

남구 한 아파트 주민은 "멀쩡한 화단이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며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야간에 학교 주차장 등을 개방해 주거밀집지역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당장 수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과 부산은 지난 2008년부터 부설주차장 활용사업을 시작해 학교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주차장 건설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광주는 구청 주차장만 개방하는데 그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비 갠틈 연막소독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29일 오후 잠시 비가 갠 사이 광주 사직공원 주변 주택가에서 연막소독이 실시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인 강제 동원 日 전범기업 299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노역시킨 일본 전범기업 중 지금까지 존재하는 업체가 299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 위원장 박인환)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일본 기업 1493개를 조사한 결과 299개가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299개 기업 중에는 일본 3대 재벌로 알려진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기업을 비롯해 히타치 중공업, 닛산, 마쓰다 등 자동차 업체, 화장품 업체 가네보, 맥주회사 기린, 가전제품 업체 파나소닉 등 일본 유수 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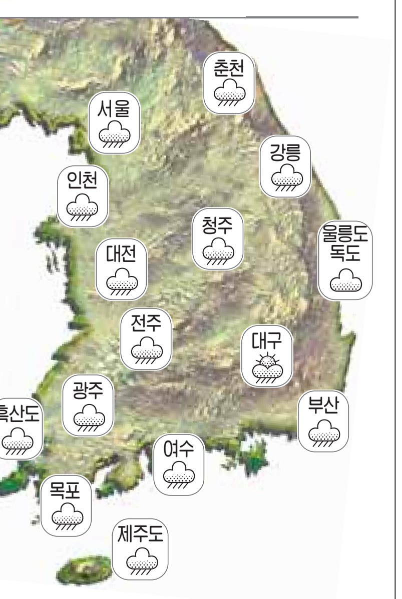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3분 해짐 19시 02분 달뜸 17시 56분 달짐 04시 28분

태풍 피해 주의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비	23/26℃
목 포	흐리고비	23/25℃
여 수	흐리고비	24/26℃
나 주	흐리고비	23/26℃
완 도	흐리고비	24/27℃
구 례	흐리고비	23/27℃
강 진	흐리고비	24/27℃
해 남	흐리고비	24/27℃
장 흥	흐리고비	24/27℃
순 천	흐리고비	22/26℃
영 광	흐리고비	22/26℃
진 도	흐리고비	24/27℃
전 주	흐리고비	24/27℃
군 산	흐리고비	23/24℃
남 원	흐리고비	22/27℃
흑산도	흐리고비	22/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먼바다	북동~동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3.0~5.0m
먼바다	동~남동	4.0~6.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3.0~5.0m
먼바다	북서~북	4.0~6.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4.0~6.0m

	밀물	썰물
목포	01:12 13:18	06:32 18:37
여수	08:05 20:40	02:03 14: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금)	9/1(토)	2(일)	3(월)	4(화)	5(수)
날 씨						
최저/최고	22/28	23/31	23/31	23/30	24/29	23/28

전남대 19대 총장 다시 뽑는다

제19대 총장 후보자(1,2순위)들의 사법처리로 총장을 선임하지 못한 전남대는 제19대 총장을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총장 후보자 2명이 약식기소됨에 따라 최종 선임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재선거 실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마지막 직선제 형태가 될 19대 총장 선거를 교수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 60일 이내, 늦어도 오는 10월26일까지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선출은 기존의 직·간선 혼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전남대는 지난 24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개정 학칙에는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됐다. 학칙 개정에 따라 전남대는 2016년 취임할 제20대 총장 선출부터 공모제 방식을 적용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정 확충 나선 광산구

책임징수제 등 특수시책 펴 재정자립도 향상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특수 시책을 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3.2%에 불과한 광산구는 다양한 세원 발굴과 '납세자 참여제' 등을 통해 자립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광산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469억원으로 14.9%, 세외수입이 263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조금 2000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조정교부금 366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744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전년 대비 16.3%(245억원)이 증액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더욱이 수완·신가·신창 등 신도심 형성과 진곡·빛그린산단 조성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구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숨은 세원발굴 TF팀을 운영해 15억 2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광산구 지방세 징수액은 2393억원으로 전년 결산대비 16.1%가 증액됐으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325억원으로 8.3% 늘었다.

민형배 청장은 "주민참여 행정과 납세자와 소통하는 구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원태기자 wtkee@

전남 학생, '의사보다 요리사'

도교육청 조사…교사·제빵·미용사順 선호

전남지역 학생들은 교사를 희망직업 1순위로 꼽은데 이어 요리·제빵·미용사를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 직업군이 대중매체에서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직업이라는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교육청이 29일 발표한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실태 파악(장래 희망직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고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교사(9.6%)였다. 이어 요리·제빵·미용사(8.2%), 공무원(7.6%), 예술가(6.4%), 연예인(6.3%), 의사(5.9%) 등의 순이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을 더 선호했다. 학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직업은 공무원이 14.2%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사(13.6%)였으며 의사(11.7)%, 법관(5.5%), 간호사(4.6%) 순이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운동선수, 요리·제빵·미용사, 연예인, 의사 순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교사, 공무원, 의사 순으로 꼽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상무지역 자활센터 복지부 평가 '우수'

광주시 서구 상무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민간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한 결과 서구는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및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입 서류 주요사항 누락땐 입학 취소·3년간 지원 금지

내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이런 제재 규정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됨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막으려고 도입된 조치다.

지원자는 대학 입학 뒤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 사항 누락과 서류위조 같은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 및 별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교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